

500여명 빛속 라이딩...가을빛 물든 1004섬 즐기다



'2023 신안 자전거 투어' 2차 행사가 열린 지난 16일 참가자들이 반환점인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에서 12km 펼쳐진 백사장의 절경을 만끽하며 달리고 있다.

틀립공원·대광해수욕장 지도·임자도 명소 코스
임자1·2 대교 개통후 첫 개방 색다른 경치 선사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48km 은륜의 행복 만끽
특산품 천일염 기념품·경품 행사...성공 마무리



'신안 자전거 투어'가 열린 지난 16일 오전 지도를 짓갈타운 축구장에서 500여 참가자가 출발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경쾌하게 질주를 시작하고 있다.

전국 자전거 동호인 500명이 임자대교를 두 바퀴로 누비며 '1004섬 신안'의 절경을 만끽했다.
'2023 신안 자전거 투어' 2차 행사가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안 지도·임자도 일대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1004스포츠클럽이 주최하고 더 바이크가 운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신안군,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가 후원했다.

이날 서울과 경기, 충남 당진, 전북 고창 등 전국 각지에서 자전거 동호인 500명이 신안에 모여 은륜 여행의 즐거움을 맛봤다.

대회는 신안 지도·임자도의 명소를 오롯이 느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경쟁'으로 치러졌다.

'열린 대회'의 취지에 맞게 행사장 곳곳에서는 3인용 자전거를 탄 꼬마들과 아버지, 2인용 자전거에 몸을 실은 연인 등 이색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2일로 대열을 맞춘 참가자들은 지도를 짓갈타운 축구장을 출발해 임자대교~전장포항~대광해수욕장-틀립공원-임자대교~짓갈타운 축구장(폐회)으로 이어지는 48km 구간을 달렸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 참가자들은 시속 20~25km를 지켰고, 임자대교에서는 15km 속도로 서행했다.

이번 주행의 묘미는 연장 4.99km의 임자 1·2대교였다.

지도에서 수도를 지나는 임자 2대교와 수도에서 임자도로 들어가는 임자 1대교는 같은 서해안이어도 지점마다 색다른 경치를 선사했다.

김재광 신안군 부군수는 "임자대교는 평소 자전거 통행이 제한됐었지만, 이번 행사를 위해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빛장을 열었다"며 "신안 관광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임자대교를 건너며 추억을 만들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신안의 500개 넘는 해변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임자대교를 건너 정면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오른쪽 해안도로를 따라 전장포항을 찾았다.

전장포항은 '전국 최대 새우젓 고창'인 신안군 임자면을 상징하는 장소 중 한 곳이다. 인근에는 짓갈 저장과 숙성을 위한 '새우젓 토굴'이 있다. 참가자들은 전장포항에서 주회축이 나눠준 간식을 먹으며 잠시 숨을 돌렸다.

끝맛같은 휴식 뒤 대광해수욕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불청객이 들어닥쳤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햇빛이 짙었지만,



대회를 시작하기 전 참가자들이 준비 운동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급작스럽게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강한 바람을 몰고 온 비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갑자기 내린 비에 참가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틀립공원과 대광 해변을 만나니 금세 미소를 찾았다.

대광해수욕장은 비금도 명사십리해수욕장과 암태도 추포해수욕장, 도초도 시목해수욕장과 함께 신안군의 4대 해수욕장으로 꼽힌다.

백사장 너비는 300m, 길이는 12km에 달한다. 따뜻한 수온과 깨끗한 수질, 경사가 완만한 수심 등이 국제 인증 평가에서 호평을 받아 지난 2021년 4월 '블루 플래그 국제 해변'에 선정되기도 했다. 매해 4월 해변 옆 틀립공원에서는 600만 송이의 튼실한 꽃망울을 터뜨리며 오색 물결을 일렁인다. 이곳은 최신 야영시설과 잔디운동장, 체육시설, 승마 체임, 소형 오프카(ATV) 등 즐길 거리도 풍부하다.

대광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신안군청소년수련관에서 참가자들이 점심을 먹으며 휴식을 이어갔다.

임자대교를 또다시 건너고 곳곳에서 경사 길과 굽이길을 만났지만, 완주를 향한 참가자들의 도전 정신을 꺾지 못했다.

대회 중점인 짓갈타운에 들어설 때 참가자들의 환한 미소는 빛줄기 속에서도 완연하게 보였다.

참가자들은 신안의 특산품 천일염 등 기념품을 받고 병창고-전기 밭살 등 경품 추첨을 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대회에 참가한 장성환(66·전북 고창)씨는 "그동안 증도와 퍼플섬 반월 박지도 등 여러 차례 신안을 여행해왔지만 신안 이 자전거 여행의 최적지라는 사실을 이번 대회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 암태도, 자은도, 암태도 등 신안지역 8개 구간 500km로 이어지는 '신안 섬 자전거길'을 완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 '2023 신안 자전거 투어'는 섬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스포츠를 결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진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은 자전거 동호인에게 신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전거 행사를 열고 있다. '2023 신안 자전거 대회' 1차 행사는 지난 6월 신안 비금·도초면 일대에서 열렸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색 참가자

3인용 자전거에 아빠·딸·아들 "가족 라이딩 꿈 이뤘어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사는 이시현(43)씨는 주말 잠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삼 남매를 보듬고 아침 일찍 신안 지도로 향했다.

지난 16일 신안군 지도·임자도 일대에서 열린 '2023 신안 자전거 투어' 2차 행사에는 두 아이를 앞뒤에 태운 '3인용 자전거'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3인용으로 개조한 자전거 앞에는 둘째 수현(11)양, 뒤에는 막내 준우(5)군이 앉아 안전모를 쓴 얼굴을 빼꼼히 내밀었다.

첫째 수빈(13)양은 따로 자전거를 몰며 삼부자를 호위하듯 뒤따랐다.

이번 대회는 기존 제한이 없는 '열린 대회'였다. 가족들과 살맛을 맞대며 패달을 밟고 싶다는 이씨의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다.

"그동안 자전거 대회에 가족을 데리고 가지 못한 아쉬움이 컸었는데, 신안에서 소원풀이를 하게 됐습니다. 자전거를 아직 익히지 못한 다섯 살배기 준우를 빼고는 아내를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 자전거 애호가입니다."

출발 직전까지 가족 동반 참가를 망설여온 그의 마음은 대회를 시작하자마자 "함께 달리기 좋았다"는 만족으로 바뀌었다.

함께 참가한 동호회 '나주 두바퀴 사랑 MTB' 회원 6명의 전폭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대회 내내 이씨 가족에 대한 응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임자도를 포함해 신안에 여러 번 자전거 여행을 온 이씨는 처음 지나보는 임자대교 구간의 짜릿함을 자녀들과 공유할 것을



자전거 대회 중반에 내린 장대비에도 웃음을 잃지 않은 이시현씨 가족.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임자 1·2대교의 중간에 있는 수도를 오갈 때 만나는 내리막길의 전율은 우리 가족 모두 잊지 못할 겁니다. 평소 반찬 투정이 잦은 막내가 고생 끝에 점심을 너무나 맛있게 먹어서 아버로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이씨 가족은 대회 중반에 퍼부은 비 때문에 이날 대회는 완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씨 가족 '자전거 부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을 알렸다. /신안=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5명 최다 참가 '고창 고인돌 MTB' "특별한 자전거길 힐링"

지난 16일 열린 '2023 신안 자전거 투어'에서 어딜 가나 시선을 사로잡는 참가자는 15명 최다 인원을 기록한 '고창 고인돌 MTB'였다.

신안 자전거 투어에 처음 참가한 고창 고인돌 팀은 출발 전 준비 운동에 열심히 임하고, 대회 내내 질서 있게 2열 주행을 지키며 '대회 모범생'으로 꼽혔다.

30명이 활동하는 고창 고인돌 MTB는 이번 대회에 회원 절반 인원이 참가하며 남다른 단결력을 자랑했다.

고창은 산악자전거 공원(MTB 파크)이 있어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배출하고 있다. 고창 고인돌 MTB는 신안 지도·임자도에 걸친 48km 장정에 앞서 최근 부안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하며 예열했다.

대회 참가자 모두 50~60대 장년층이었지만 푸른색 단채복과 어울리게 쾌활함을 잃지 않았다. 대회 중간에 큰비가 내렸지만 회원들은 기본 10년 넘는 경력이 겹맞게 우비를 챙겨입고 꿇이 다시 주행을 나섰다.

주장 류병욱(62)씨는 참가 취지를 '힐링'으로 압축했다.

"우리 동호회는 연륜과 함께 다양한 자전거 종주 경험을 지닌 회원이 많습니다. 전국 팔도 1900km를 누비며 전국 12개 자전거 길을 모두 달리는 '국토완주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회원도 있죠. 2시간 30분을 차로 달려 신안 섬에 온 건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자전거 길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안 자전거 투어 '최다 참가'(15명)를 기록한 고창 고인돌 MTB 회원들이 출발 전 안전하고 즐거운 주행을 다짐하고 있다.

황관용(64)씨는 연장 4.99km의 임자대교를 오간 뒤 대회를 마치고 찾은 천사대교에 대한 설명을 나타냈다.

"평소 자전거로 오갈 수 없는 임자대교를 오고 가며 1004섬 신안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길이 7km가 넘는 천사대교에서 바라보는 신안 앞바다의 모습은 어떻게 기대되었어요."

고창 고인돌 팀의 이날 일정은 대회가 끝난 뒤에도 저녁까지 신안에서 계속됐다. 천사대교 등 신안의 명소를 찾고 맛집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신안=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